



- 데이터 설명
 데이터 분석
 모델링
 결과 분석

데이터 설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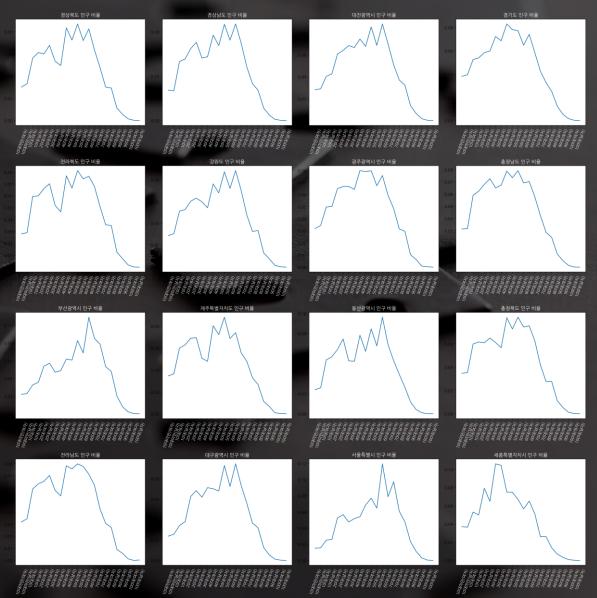
	단지코 드	총세 대수	임대건 물구분	지역	공급 유형	전용면 적	전용면적 별세대수	공가 수	자격 유형	임대보증 금	임대료	도보 10분거리 내 지하철 역 수(환승노선 수 반영)	도보 10분거리 내 버스정류장 수	단지내주 차면수	등록차 량수
0	C2483	900	아파트	경상 북도	국민 임대	39.72	134	38.0	Α	15667000	103680	0.0	3.0	1425.0	1015.0
1	C2483	900	아파트	경상 북도	국민 임대	39.72	15	38.0	Α	15667000	103680	0.0	3.0	1425.0	1015.0
2	C2483	900	아파트	경상 북도	국민 임대	51.93	385	38.0	Α	27304000	184330	0.0	3.0	1425.0	1015.0
3	C2483	900	아파트	경상 북도	국민 임대	51.93	15	38.0	Α	27304000	184330	0.0	3.0	1425.0	1015.0
4	C2483	900	아파트	경상 북도	국민 임대	51.93	41	38.0	Α	27304000	184330	0.0	3.0	1425.0	1015.0
2947	C2532	239	아파트	강원 도	국민 임대	49.20	19	7.0	Α	11346000	116090	0.0	1.0	166.0	146.0

train 데이터셋은 단지코드 별 아파트 혹은 상 가 개개인의 특성 데이터가 있다. 예측해야 할 변수는 *등록차량수*로 단지코드내의 등록차량 수는 같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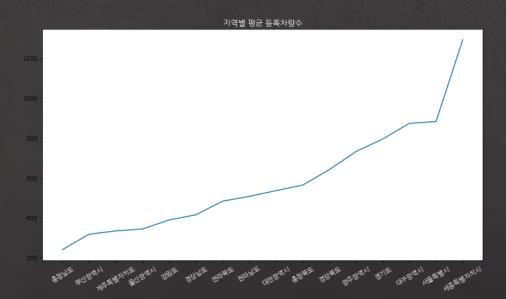
위 age_gender_info 데이터셋은 지역에 따른 인구분포를 보여준다. 지역별로 특정 연령대가 차지하는 비율로 나타냈다.

데이터 분석 - age_gender_info



age_gender_info 에서 지역에 따른 인구 비율 분포를 확인했을 때, 그래프의 모양이 비슷함 을 알 수 있다. 서울이나, 부산이 비슷하고 그 외 지역은 20대 많고 40~50대가 많다. 다만, 세종시가 특별하게 20~30대가 많았다.

밑의 그래프로는 세종시가 평균 등록차량수가 많았다. 지역의 특성인지 나이대로 미루어봐도 20~30대,40~50대가 가진 차가 많아서 그런 지 가설을 세워야 할 것 같다.



데이터 분석 - 자격유형 & 공급유형

train 데이터셋에서 *자격유형* 은 A가 가장 많고 O가 하나로 가장 적다.

처음엔 자격유형이 O인 아파트가 *공급유형*이 행복주택이라 행복주택만 봤는데 J K L M N O 밖에 없었다. 그리고 모두 행복주택이다. 행복 주택의 자격유형이 J K L M N O를 맡는다.

영구임대는 대부분 C고, 영구임대와 국민임대를 제외한 공공임대(5년),10년,50년, 장기전세는 모두 A형이다.

test의 자격유형 2개가 비어있는데 C2411와 C2253다. 찾아보면 그냥 다 같은 유형이고 해서 각각 A와 C로 채워준다.

공공임대(5년, 10년, 50년, 분납)은 영구임대, 장기전세, 국민임대보다 평균적으로 *단지내주 차면수*보다 *등록차량수*가 많다.

다만, 등록차량수가 많은지 단지내주차면수가 많은지 따졌을 때 자격유형의 차이는 없었다.

'B','F','0' 는 train 셋에만 있다. test에는 없고 train에만 있는 자격유형이다.

'공공분양', '공공임대(5년)', '장기전세' 는 test 에 없고 train에만 있는 공급유형이다.

데이터 분석 - 결측값(임대료,임대보증금)

train이나 test나 임대료가 비어있으면 임대보 증금도 비어있다.

train이나 test나 임대료가 비어있는 것의 자격 유형은 D다.

'강원도', '경상남도', '대전광역시', '부산광역시 ', '제주특별자치도', '충청남도' 이 지역들이 임 대료가 비어있는 것들이 있다.

임대건물유형을 봤는데 '상가'가 모두 <mark>임대료</mark> 가 없다.

상가와 아파트가 껴있는 경우 등록차량수 보다 단지내주차면수가 많았다. 차를 많이 댈 수 있 다는 뜻이다. train과 test에는 '임대료'가 '-'인 경우도 있다.

그리고 임대보증금이 모두 비싸다. 임대료보다.

임대료 대비 보증금은 작게는 40배에서 크게는 1900배 정도로 분포해 있다. 평균 170배정도다.

데이터 분석 - 결측값(버스,지하철)

train 데이터 셋에서 지하철수가 1보다 크다면 대부분 단지내주차면수가 등록차량수보다 많 다. 0에서는 비슷하다. 다시말해, 지하철수가 있다면 아파트에 보통 차 댈 수 있는수가 더 많 다는 뜻이다.

버스정류장수는 6이나 8일경우 등록차량수가 더 많지만, 그 외는 아닌걸로 봐서 차이를 잘 모 르겠다.

지하철은 대부분 없으니 0으로 채우는게 나아보인다.

버스는 대부분 있어 보이니 중위값으로 채운다.

모델링 - 첫번째 시도.

```
df=train.loc[(train['임대보증금'].notnull())&(train['임대료']!='-')&(train['임대료'].notnull())]
df['임대료']=df['임대료'].astype(int)
df['임대보증금']=df['임대보증금'].astype(int)
```

임대료가 - 이거나 nan 값인 경우와 임대보증금이 nan 값인 경우 모두 제거

```
train['도보 10분거리 내 지하철역 수(환승노선 수 반영)']=train['도보 10분거리 내 지하철역 수(환승노선 수 반영)'].fillna(0)
train['도보 10분거리 내 버스정류장 수']=train['도보 10분거리 내 버스정류장 수'].fillna(0)
```

test['도보 10분거리 내 지하철역 수(환승노선 수 반영)']=test['도보 10분거리 내 지하철역 수(환승노선 수 반영)'].fillna(0)

나머지 빈값 0으로 채우기.

train=train.drop_duplicates(test=test.drop_duplicates()

train=train.dropna() test=test.dropna() 중복값 제거

train=train[['단지코드','총세대수','전용면적','단지내주차면수','등록차량수']] test=test[['단지코드','총세대수','전용면적','단지내주차면수']]

숫자로만 변수 생성.

```
mean_area=pd.Series(train.groupby('단지코드')['전용면적'].mean(),name='mean면적')
median_area=pd.Series(train.groupby('단지코드')['전용면적'].median(),name='med면적')
std_area=pd.Series(train.groupby('단지코드')['전용면적'].std(),name='std면적')
min_area=pd.Series(train.groupby('단지코드')['전용면적'].max(),name='min면적')
max_area=pd.Series(train.groupby('단지코드')['전용면적'].max(),name='max면적')
sum_area=pd.Series(test.groupby('단지코드')['전용면적'].mean(),name='mean면적')
ts_mean_area=pd.Series(test.groupby('단지코드')['전용면적'].median(),name='mean면적')
ts_std_area=pd.Series(test.groupby('단지코드')['전용면적'].std(),name='std면적')
ts_min_area=pd.Series(test.groupby('단지코드')['전용면적'].max(),name='mined')
ts_max_area=pd.Series(test.groupby('단지코드')['전용면적'].max(),name='mined')
ts_max_area=pd.Series(test.groupby('단지코드')['전용면적'].max(),name='max면적')
ts_sum_area=pd.Series(test.groupby('단지코드')['전용면적'].max(),name='max면적')
```

전용면적의 경우 세로로 여러 개 있는 데이터들을 가로로. (aggregation 적용하여 mean,median,std,min,max,sum 값을 활용.)

후에 merge.

from sklearn.linear_model import LinearRegression

model=LinearRegression(normalize=False)

model.fit(train.drop('등록차량수',axis=1),train['등록차량수'])

pred=model.predict(test)

회귀 문제로 생각하여 예측.

결과 : 118.

모델링 최적화

예측값에서 -5 한 경우 리더보드결과가 제일 좋았다.

결과 : 115

모델링 - 두번째 시도.

```
df_train.loc[df_train.지역.isin(['서울특별시']), '지역'] = '이외'
df_train.loc[df_train.공급유형.isin(['공공임대(5년)', '장기전세', '공공분양']), '공급유형'] = '이외'
df_train.loc[df_train.자격유형.isin(['0', 'B', 'F']), '공급유형'] = '이외'
```

train에만 있었던 필드값들을 '이외'로 변환.

```
train.loc[(train.지역 == '총청남도') & (train['도보 10분거리 내 지하철역 수(환승노선 수 반영)'].isnull()), '도보 10분거리 내 지하철역 수
train.loc[(train.지역 == '경상남도') & (train['도보 10분거리 내 지하철역 수(환승노선 수 반영)'].isnull()), '도보 10분거리 내 지하철역 수
train.loc[(train.지역 == '대전광역시') & (train['도보 10분거리 내 지하철역 수(환승노선 수 반영)'].isnull()), '도보 10분거리 내 지하철역
```

충청남도,경상남도,대전광역시 지하철 없다.

```
train['임대건물구분'] = train['임대건물구분'].astype('category').cat.codes
train['지역'] = train['지역'].astype('category').cat.codes
train['공급유형'] = train['공급유형'].astype('category').cat.codes
train['자격유형'] = train['자격유형'].astype('category').cat.codes
```

범주형 변수들의 카테고리화.

```
skf = StratifiedKFold(n_splits=5, shuffle=True, random_state=42)
folds=[]
for train_idx, valid_idx in skf.split(train, train['등록차량수']):
folds.append((train_idx, valid_idx))
```

stratifiedkfold로 5번으로 나눠 folds를 설정.

```
submit.iloc[:,1:]=0
pred_y = test['단지내주차면수']
pred_y = 0
for fold in range(5):
    pred_y += lgb_models[fold].predict(test_x)/5
```

```
result = pred_y.groupby('단지코드').sum()
value = pred_y.groupby('단지코드').count()
result = result/value
```

5번의 값을 5로 나눈 후 저장. 그 후, 개별 아파트 값을 예측 했으므로 단지코드로 그룹지어 데이터 개수를 직접 나눠준다.

결과: 111

모델링 최적화

예측값에서 -30 하고 -값들을 모두 0으로 처리한 경우 리더보드결과가 제일 좋았다.

결과 : 108